

「2026 제70회 미스 전라·광주·제주 선발대회」방영에 대한 의견 제출

(사)광주여성민우회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가족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며 성폭력, 성희롱을 근절하고 나아가 건강한 성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6월 10일 개최된 「2026 제70회 미스 전라·광주·제주 선발대회」가 6월 13일 오전 9시 50분 kbc 광주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여성민우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2026 제70회 미스 전라·광주·제주 선발대회」에 대한 광주여성민우회의 입장

미인대회는 여성의 신체와 외모를 심사와 순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사입니다. 참가자를 외모·신체 비율 등의 기준으로 줄 세우고 등급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여성을 평가 대상화하며, 이는 여성의 가치를 외모로 환원하는 사회적 인식을 재생산합니다.

2. 「2026 제70회 미스 전라·광주·제주 선발대회」중계가 공중파에서 축소되어 온 배경

과거에는 미스코리아를 비롯한 미인대회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주요 공영·민영 방송사들은 순차적으로 미인대회 중계를 중단하였습니다. 방송이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영향을 미치는 매체인 만큼, 성차별적 가치를 확산하는 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3. kbc 광주방송의 「2026 제70회 미스 전라·광주·제주 선발대회」방영이 문제인 이유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의 특성상, 방송사는 공공성·공익성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지니며, 콘텐츠 편성 역시 이러한 책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점수화하고 서열화함으로써 여성의 가치를 외모와 신체적 조건으로 환원하는 성상품화적 구조를 재생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의 몸을 상품처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여성의 가치를 외모와 신체적 매력으로 환원하는 문화는 광고·미디어 산업은 물론 여성의 몸을 소비와 상품화의 대상으로 삼는 다양한 산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의 반복적 노출은 여성에 대한 외모 중심적 평가 기준을 사회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공중파 방송사는 점차 미인대회 중계에서 손을 떼어 온 맥락이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이 이번 「제70회 2026 미스 전라·광주·제주 선발대회」를 송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입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광주여성민우회는 kbc 광주방송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 이번 방영 결정에 대한 경위와 입장을 본 의견서 수신일로부터 2주 이내 서면 회신
- 향후 미인대회 등 외모 평가 중심 행사에 대한 편성 중단
- 콘텐츠 편성 시 성평등 관점을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 마련

광주여성민우회는 지역 방송이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성평등 가치에 역행하지 않는 매체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